



2011. 5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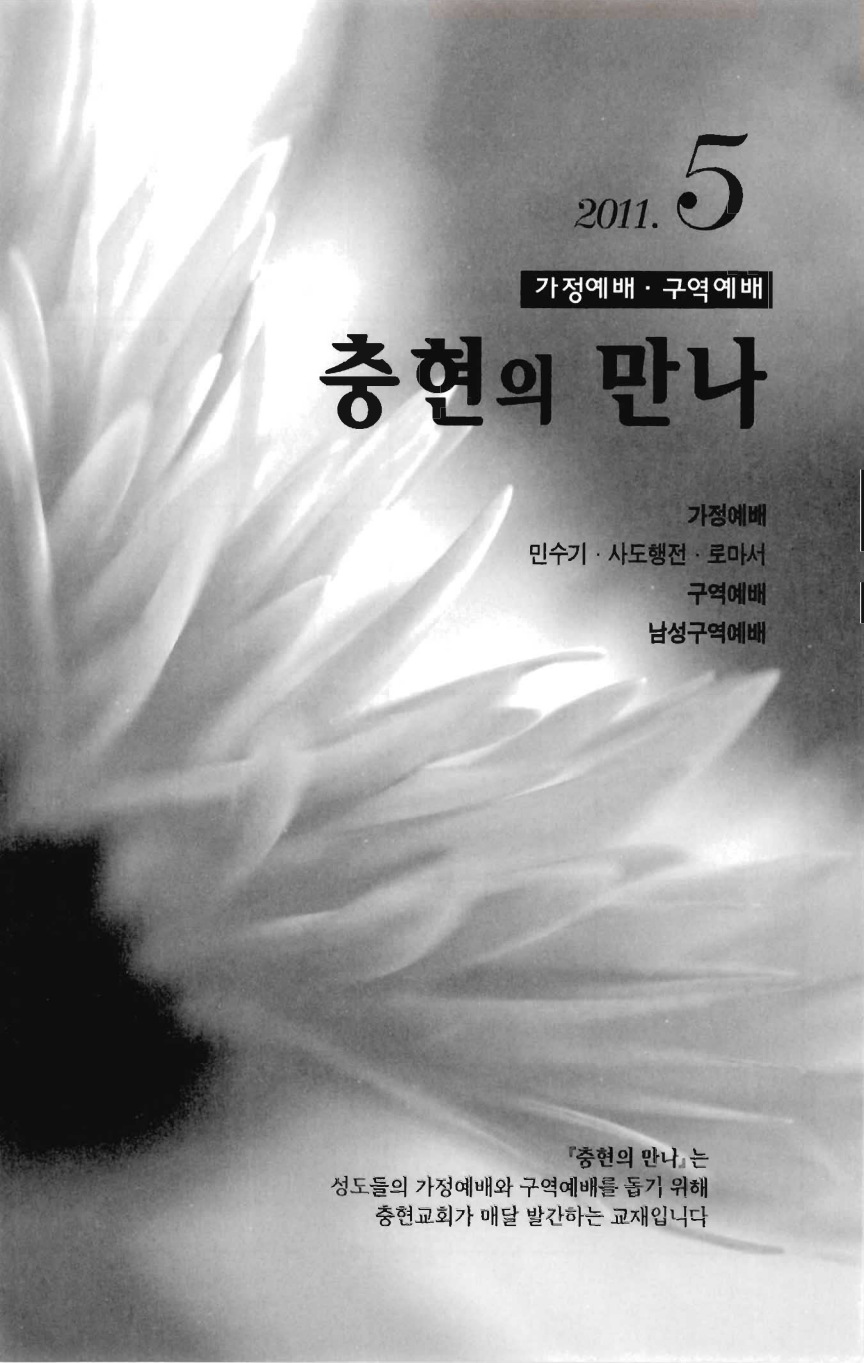
가정예배

민수기 · 사도행전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011. 5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 사도행전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5

2011
Ma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민수기 6장	2 민수기 7장	3 민수기 8장	4 민수기 9장
8 민수기 13장	9 민수기 14장	10 민수기 15장	11 민수기 16장
15 민수기 20장	16 민수기 21장	17 민수기 22장	18 민수기 23장
22 사도행전 24장	23 사도행전 25장	24 사도행전 26장	25 사도행전 27장
29 로마서 3장	30 로마서 4장	31 로마서 5장	

June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목요일

5 민수기 10장

금요일

6 민수기 11장

토요일

7 민수기 12장

교회 주요일정

5월 1일

제4차 성찬식

5월 8일

어린이·어버이주일(가족연합예배)

나의 주요일정

12 민수기 17장

13 민수기 18장

14 민수기 19장

19 민수기 24장

20 민수기 25장

21 사도행전 23장

26 사도행전 28장

27 로마서 1장

28 로마서 2장

- 1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 보혈의 은혜를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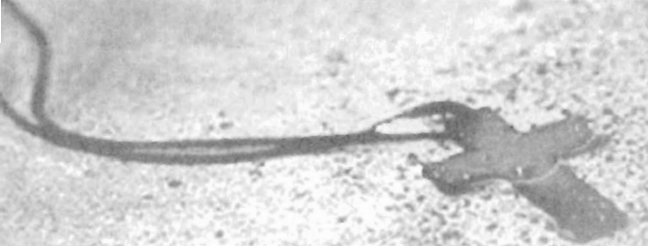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2~27).

2011년 5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자기 몸을 구별하여

민수기 6장 · 찬송가 420장

나실인이란 ‘떠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모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서원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레 요한은 평생,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의 율례를 다루는데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2,4~8,12,18~19,21절). 이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성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뜻합니다. 나실인에게 있어서 거룩을 위한 세 가지 금지 조항 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육적인 유혹의 상징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구별된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하게 되었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2). 나실인에 대한 구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신 명령입니다(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구별된 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되어 새로 거듭난 삶입니다. 나실인이 서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실인으로 정결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민 6:8)

기도제목

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듭난 삶을 허락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하는 제4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씀하시는 목소리

민수기 7장 · 찬송가 217장

2

월요일

“구별과 헌물(헌신)”은 6장과 7장의 중심 단어로서 구별(6:1~21)이 있는 후에 축복(6:22~27)과 봉헌물(7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는 모든 예물을 정결(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막의 봉헌식에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회막과 그 재료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헌물용 금은 기물 및 희생 제물(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12명이 매일 한 사람씩 12일 동안 같은 수량으로 드렸습니다(10~17절). 번제물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유다 지파(12절)임을 부각시킵니다. 제사 드리는 순서와 행군 순서가 동일한 것은(2:3~4절)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 예언의 성취이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히 7:14).

모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89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란 모세의 귀에 분명히 들려지는 직접적이고도 생생한 실제 음성을 말합니다(12:8 ; 출 3:4).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뜻하는 임마누엘 사상으로 후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거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던라”(민 7:89)

기도제목

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라

민수기 8장 · 찬송가 264장

레위인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으나, 레위인이 장자 대신으로 선택되어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레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정결로 거룩히 구별되어 임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결되기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인수하게 한 후에 제물로서 드려졌습니다(1~11절). 그리고 그와 동시에 레위인을 위한 속죄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인은 여호와와의 것이 되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12~15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성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는 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죄악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와 정결함을 받을 때 택함받아 임명된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의 등잔에 대한 말씀은 늘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민 8:7)

기도제목

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민수기 9장 · 찬송가 430장

4

수요일

“명령”(4~5, 8, 18~20, 23절)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 예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선민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라”(8절)고 명하십니다. 이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둘렀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8절)고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시 37:7 ; 사 30:18).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행진하고,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행진할 때도 있지만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날이 오랴 때도 있을 것입니다(19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20~22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때로는 머물기도 하는 기다림과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민 9:18)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가며

민수기 10장 · 찬송가 202장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출발했습니다(1~10절).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 구원하시리라”(9절)는 말씀은 약속을 기억하사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시 98:3). 시내산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행군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14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군 대열에 선봉을 이룬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33절).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할 때 그들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위치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한 천국을 목적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루 하루 살아야 하는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나그네 생활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안내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는 일이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행군의 중심이 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붙들읍시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읍시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민 10:33)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불평과 감사

민수기 11장 · 찬송가 545장

6

금요일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의 수일간의 행군 도중에 발생한 두 번의 불평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 가운데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 중의 일부가 탐욕을 품고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4~35절).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영적 지도자의 고민과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탐욕을 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셨으며 탐욕으로 고기를 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33절). 이러한 모습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6절) 하며 불평하였을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출 16:14~15)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만나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주의 성령께서 슬퍼하며 탄식하십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 중 가장 큰 감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민 11:23)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민수기 12장 · 찬송가 407장

지도자들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방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합니다(1절). 모세가 행한 일은 죄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제외한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출 34:16).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아내를 취한 것을 좋지 않게 여겨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혈통의 순수성만으로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도전했고,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를 변호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롬 13:1~2)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또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었기에 십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움 받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교회의 권위에 늘 순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 12:3)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어린 아이처럼

“어린이들이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어린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어린이를 믿음의 표준으로 삼으셨을까?”

(D.L. Moody).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절대로 모호하게 만들지 않
으신다. 말씀 중에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
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
려 하심이라”(요 3:16). 어린 아이가 되어 구원의 진리를 단
순히 믿자.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신 1:21).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신 1:26).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1인씩 택하여 정탐을 보냈으며 정탐자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렸던 것입니다. 정탐자들은 다 같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2명 중 다수인 열 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곳의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심히 큰 거민을 보고 겁이 난 열 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며,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30~31절).

이들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는 ‘교회를 사랑하며 걱정한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불신앙적인 열 명의 보고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연기되었듯이 부정적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더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믿음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민 13:31)

기도제목

①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불신앙임을 깨달으며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가 생동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한 후에 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불신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1~4절). 그 결과 출애굽 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십 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합니다(29절).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사악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8절)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3절)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함은 핑계할 여지없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함에도 여전히 분석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원악한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마귀가 포장하여 속임수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민 14:9)

기도제목

①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심판을 선고 받은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1~31절)와 안식일 규례(32~36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구별됨(37~41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언급된 율법을 요약해 주며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도 믿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강조하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41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 제사 제도 가운데 속죄제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속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저주 받은 십자가,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만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 15:40)

기도제목

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라와 그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심판하심으로써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하셨습니다(31~35절).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오직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영병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서도록 했습니다(46절).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올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요 17장).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28절)라는 모세의 말은 예수님의 “나를 보내사”(눅 4:18~19)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올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속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 우리를 붙들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민 16:28)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라 일당의 반역과 멸망 이후에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8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막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주시며, 항상 깨어 있어 인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우쳐 주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새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영적 모습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역경이 우리에게 있어도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흔적이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인기와 명예와 공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 17:8)

기도제목

①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물로 주신 직분

민수기 18장 · 찬송가 455장

13

금요일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무와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 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맡은 바 일이 크고 중할수록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큼니다. 고라 자손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교만으로 제사장 직분을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알고 탐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떠한 역할 이든지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인과 합동하여 성막 일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2,4절). 주님의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은 혼자서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직책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직분도 우리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 되지 않을 때 교회의 직분은 자신의 명예와 실력 행사와 교만의 자리로 바뀝니다. 봉사와 섬김의 모든 삶은 자칫하면 자기 의와 공로를 굳혀가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민 18:7)

기도제목

- ① 선물로 주신 직분을 오직 주의 일에만 사용하게 하소서.
-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자, 시체들로 인해 온 회중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예식을 일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이는 재를 만들기 위해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암송아지만으로는 속죄제물로써의 기능이 불완전하므로 백향목, 우슬초 등의 다른 재료들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을 불사르고 난 후 생겨난 재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거하며 정결함을 입기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였습니다(10절).

이와 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인류를 정결하게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믿고 사모하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완전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영광스런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민 19:9)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게 하소서.
-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주님은 명령하셨건만 돌아해보면 불평 불만의 삶이 더욱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일찍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배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 시골의 어린 촌놈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사영리'를 외워 비를 맞으며 전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청년의 때에 기도원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모임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배필을 주셔서 아들을 낳으면 '찬양'이라 하고, 딸을 낳

으면 '찬미'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이 일곱 해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이십 대의 끝자락에 서울에 올라와 충현교회에 첫발을 디뎠으나 십여 년이 넘게 봉사는 않고 예배에만 참석하다 보니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서 방황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이 가슴을 두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지금에서야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주님은 약속대로 두 자녀, 찬양과 찬미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건만 직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투성이인 나약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매주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감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들의 이름대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곽홍운(집사, 8교구)



너희는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 찬송가 521장

15
주일

이스라엘 백성은 신평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습니다. 광야의 유랑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12, 24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요, 선포자이며, 전수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새 하늘과 새 땅(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그 율법(행위)으로 인해 죽었거늘, 하물며 그 누가 율법(자신의 공로)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롬 3:28)!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경륜이 깔린 구속사의 대 선언이며, 모세의 실수는 그러한 섭리의 결과로 파생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과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히 7:21, 24).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것은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의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 20:12)

기도제목

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도중에 만난 몇몇 족속을 정복한 내용으로 시작된 말씀은 아랏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 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4절). 그렇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 죽게 하는가”(5절) 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즉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7절).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뱀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뱀뱀을 우뚝 세우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 죄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자는 예수님이시며(9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8절)고 약속하십니다. 뱀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함으로 뱀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뱀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에 이르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 21:9)

기도제목

① 뱀뱀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방 족속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6절)고 하며 이방의 술사 발람을 초청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엄히 경계하십니다(1~14절). 그러나 발락은 발람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15~20절). 발락에게 나아가는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와 심지어 발람이 탄 나귀의 입술을 통해 발람이 가야 할 시명을 일깨우십니다(21~35절).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의 칼을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발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으나 눈이 어두워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셔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34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34절)라고 고백하는 발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마 6:24). 자기 부인과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됩시다.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민 22:34)

기도제목

① 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발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의 소원과는 정 반대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바알신당에 일곱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의지와는 달리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예언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으로 발람을 데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의지와 입술의 말까지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12,26절). 이는 발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4~5,16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술사 발람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짓던 입술, 악한 말을 도모하던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십자가 말씀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민 23:12)

기도제목

① 우리 입에 주신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3~4, 15~16절).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2절) 자신의 모습이 거짓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선언합니다(5~9절). 메시아의 출현과 장차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패망시키리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14~25절).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발락의 악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5~9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17절)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세운 이방인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겠다는 발람의 고백(1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4, 16절) 되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삶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민 24:13)

기도제목

① 한 별, 한 규,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출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모압 여자들은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으로 시작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여 행한 음행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1~5절). 이스라엘의 부패에 분노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합니다(6~8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결도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육체의 타락은 영혼과 인격의 타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 때문입니다(고후 6:16).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쾌락의 집요한 유혹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타협하기 쉽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며 교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민감하게, 눈치채도록, 엄청나게 달려들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둔해져 분별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갇아먹는 작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매초,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 25:3)

기도제목

① 깨어있음으로 영을 분별케 하시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집회(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23장 · 찬송가 384장

21

토요일

범사에 양심을 따라(1절) 하나님을 섬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향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12~13절). 천부장에게 그 사실이 미리 알려짐으로(11~22절) 바울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비밀리에 호송되었습니다(23~35절). 바울이 심문을 받는 까닭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음입니다(6절).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바 있고(19:21)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이미 각오한 바 있었지만(20:22~23), 그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들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고전 2:3). 바로 이 순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이후 2년간에 걸친 로마 전도 여행에서 많은 위험이 있었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11절).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행 23:11)

기도제목

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하소서. ② 핍박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씀은 나의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17)

신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어느 거리에나 활짝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그런데 혹시 아름다운 만물로 가득한 이 계절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면서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치 좋은 산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려고 교회마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경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아름다움은 천국에 있습니다(계 21:10~11). 우리는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3:5).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엡 2:8).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롬 10:16).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을 강해 중인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또한 일 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충현성경통신강좌’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문의/각 교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말씀을 붙드는 삶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리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가이사랴까지 뒤따라가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내세워 총독에게 고소합니다(1~9절).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합니다(10~21절). 하지만 벨릭스는 2년 동안 판결을 보류합니다(22~27절). 벨릭스는 무엇이 옳고 진실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들은 후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으나 그 이상 더 진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으나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그 이상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5절)라고 하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그를 잡았다고 합니다(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막 11:15~19). 바울이 결정적으로 음모에 걸려든 것도 성전에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으로(21:27~30) 예수님과 제자의 고난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은 벨릭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함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16절)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행 24:26)

기도제목

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복음 증언하는 일에 전염병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25장 · 찬송가 508장

23

월요일

애매모호한 총독 벨릭스의 태도 때문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던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1~5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물리칩니다(6~12절). 총독 베스도는 로마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바울에 관하여 아그립바 왕의 조언과 도움을 청합니다(13~27절).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열심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19절) 주장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시거나 나쁜 상황을 주시거나 모든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환경에 눌러 꺾겨버려봐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신변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모든 기회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만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행 25:25)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복음 증언하는 일에 쓰임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울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아그립바는 바울의 일생과 회심, 그리고 전도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1~23절).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바울이 로마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요구한 사실로 인해 석방이 불가능함을 말합니다(24~32절). 바울은 변론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까지 복음의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24절) 하며 조롱하는 베스도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확신 있는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의 본분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7절)이라는 말씀을 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변증합니다. 이 소망은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6절)으로 열두 지파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즉 구약의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이 메시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강조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9~18절). 그는 아그립바를 향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29절).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전생애가 복음을 증언하는 데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행 26:29)

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생애가 복음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로마항제(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해 출발한 바울 일행의 항해 과정을 말씀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니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1~12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처합니다(13~20절).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23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24절)라는 말씀을 전하며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자신 때문에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을 증언합니다(22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23:11).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주시는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25절)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5)

기도제목

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이적을 언급하고(1~10절), 이어서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기 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과(14~15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이루어진 두 번의 만남(16~28절), 그리고 로마에서의 전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29~31절).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언급 없이 사도행전의 끝을 맺고 있는 이 말씀은 아쉬움을 남김과 동시에, 세계 선교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울을 쇠사슬에 매이게 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공회에서(23:6), 벨릭스 앞에서(24:15),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26:6) 증언했던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24:15)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28절)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며 쇠사슬에 매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행 28:28)

기도제목

①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서 1장 · 찬송가 363장

27

금요일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2절).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며, 신화나 전설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된 바울의 변증을 볼 때 복음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이며, 신약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음이 “은혜”와 “부르심”이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5~7절).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시작하며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를 말씀하고 있습니다(17절).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시오. 구약은 율법의 계시를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으며, 믿음으로 구원 얻음,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인의 삶인 영적 예배에 관한 로마서의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6)

기도제목

①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판단하는’의 뜻은 하나님의 ‘판단’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의심하다’(눅 24:38), ‘헤아리다’(마 7:2), ‘구별하다’(마 13:30)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말씀에서는 인간이 그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요 8:15; 약 4:12). “남을 판단하는 사람”(1절)이란 율법을 받고 자랑하면서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이웃을 판단하는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판단했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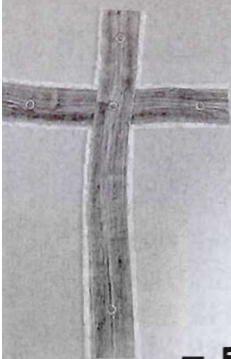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를 자랑할 뿐더러 오래 참으심과 속히 징벌을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였습니다(전 8:11). 우리에게도 동일한 판단함과 교만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상의 일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안다고 교만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죄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며(29절) 판단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9)

기도제목

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 고통이 찾아올 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아픈 경험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임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번 선교가 그랬습니다.

10년 만에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쳤다는 선교지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1천 마리의 양 가운데 3마리만 살아남은 농장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휩쓸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고, 벌판에는 바람 때문에 죽은 소와 양, 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집안에 들여놓을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의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한순간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서툰 메시지로도 위로를 받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받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한 소년과 복음을 들으며 환희에 찬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를 보며 회오리바람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어진 마음으로 몽골의 영혼에게 다가가기 원했던 제게 주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제가 아니라 주님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그 위로와 복음이 제 입술을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동을 주는지 이제껏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금 고통과 주님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고통까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고, 자녀인 저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진순(권사, 19교구)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3장 · 찬송가 436장

29

주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1절)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나으냐”(9절)라는 질문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20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습니다.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9:4)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인의 유익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31절).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29절)을 대조하여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22절).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기도제목

①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시심을 감사하며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3:19~31) 바울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구체적 예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확신한 믿음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창 18:14; 히 11:19).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태어나면서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할례가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은 선민의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1~8, 13절).

바울은 일하는 자와 일을 아니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4~6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도 일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우리의 의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아무 짓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강한 우리의 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일한 것을 내세워 은혜를 보수로 여기지 않도록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기도제목

① 일한 것을 자랑하여 그 값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담과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14절), 심판과 은사(16절), 사망이 왕 노릇함과 생명 안에서의 왕 노릇(17절),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18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과 한 사람의 순종함(19절), 죄와 은혜(20~21절)로 대조되는 말씀으로 전개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8절).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1:18, 2: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평안 상태를 가리킨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화평은 인간 내부의 인격적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우호적 관계라는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적으로 누리게 되므로 화평을 누린 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2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3절)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10~11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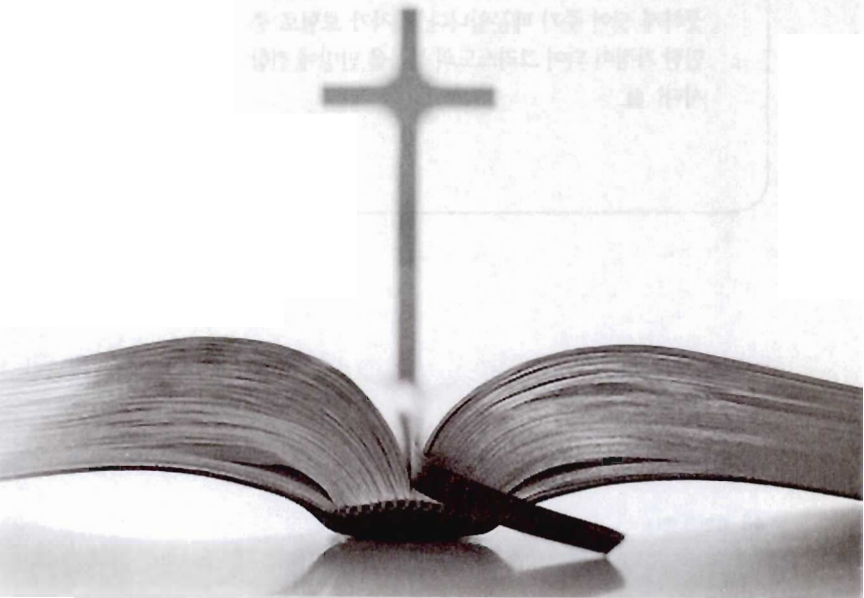
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5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가정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누구를 닮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겪는 위기의 원인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없는 데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먼저 십자가 보혈로 충만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의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합시다! 🏰

4월 29일 | 고린도전서 10:16
성찬식
성찬식은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다

5월 6일 | 사도행전 11:26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5월 13일 | 요한복음 13:3~17
발을 씻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5월 20일 | 요한복음 21:1~14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5월 27일 | 사도행전 1:11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1년 4월 29일

1 과

성찬식

| 초점 |

성찬식은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다

| 찬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성경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에 대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또는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놀라워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매우 낮설어하겠지만 신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신자들은 성찬식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제를 행해야 합니다.

고전 10:16 _____

고전 1:9 _____

교제는 확실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성찬식을 통한 교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들이 함께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고후 3:14

성찬식에서의 교제는 우리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빌 1:3,5,7 /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_____,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_____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성찬식에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은혜는 성령님이 가져다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켜 각각 중요한 사 람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 전체와의 교제

성찬식은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행 2:42

성찬식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히 혼자서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즉 예배, 기도, 성경묵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일 4:20~2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영육 간의 교제

성찬식은 몸과 영으로 함께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골 1:20 _____

골 2:13~15 _____

성찬식을 지킬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질병, 여행 또는 우리의 길을 막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함께 모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구세주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은 주의 식탁에서 교제를 가집니다.

※ 성찬식의 교제가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롬 3:23~24 _____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합니다.

눅 22:19~20

이 세상은 성찬식의 교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룬 모든 교회는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육신적, 영적 행위입니다. 특별한 교제의 시간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011년 5월 6일

2과

그리스도인 가정

| 초점 |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 찬송 |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본문 | 사도행전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스테반의 순교와 관련해 일어난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신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행 11:2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좋고 성공적이며, 영리하고, 건강하거나 넉넉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간의 차이는 그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특별한 가정의 날이니,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합니다.

요 3:3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의 소원은 주님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서 모든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요 3:16).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겸손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겸손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빌 2:5~8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신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 로마서 12:1~2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롬 5:5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특정한 때에만 있지 않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엡 5:1~2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엡 4:22~27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야만 합니다(엡 5:19~21).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마 5:13~14 / 너희는 세상의 □□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의 현재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빛을 냅니다.

마 28:18~20 _____

마 5:16 _____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선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 16:31~32 /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_____

갈 6:10 _____

악한 원수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1년 5월 13일

3과

발을 씻다

| 초점 |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 찬송 |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본문 | 요한복음 13:3~17

³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⁴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⁵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⁶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인간으로서 33년 6개월간의 험난했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으로 그를 배신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구세주를 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흉악한 모든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갈 4:4 _____

요 13:1 _____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본문에 기술된 것처럼 용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세주가 종이 되다

구세주는 종이 되셨습니다.

요 13:3~5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모든 찬양을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십니다.

고전 6:9~11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엡 5:25~27).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구세주가 죄를 씻어 주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 요한복음 13:6~11 말씀을 요약 및 정리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께 큰 소리를 친 후에 예수님을 단호하게 세 번 부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마 26:75). 발을 씻기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 1:7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깨끗해집니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딤후 3:5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요 13:12~1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다른 것들에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살전 3:12~13

히 3:13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할 모든 흉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고 있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빌 2:5~8 _____

약 4:6 _____

| 믿음의 기도 |

1.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3.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2011년 5월 20일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 초점 |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 찬송 |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본문 | 요한복음 21:1~14

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②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 ③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④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의 성경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요 21:2

이 7명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삼 일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제자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귀향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 26:32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귀향했을 때 이전에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료 제자들도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했고, 그들은 모두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바다의 소리와 냄새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했습니다.

요 21:3 / 시몬 베드로가 _____ 하니 그들이 _____
_____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결정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롬 14:7~8 _____

고후 2:15 _____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우리의 소금됨과 빛됨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제자들은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 21:3 /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
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_____

7명의 숙련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
입니까!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아무 것도 수확하지 못한 것이나 환
자를 돌보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
은 밤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을
테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했으며, 그들의 수고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 숙련된 어부였던 7명의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제자들의 교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없
는 그들의 사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그 배 위에서 무엇을 했든지 하
지 않았든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시 16:2 _____

마 7:22~23 _____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은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 21:4~6

눅 1:78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아침을 가져다주십니다. 그래서 밤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돋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 명료한 질문을 던지셨고, 제자들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전문가의 관점을 가지고 대꾸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 21:7

히 5:8~9

※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그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요 21:12~14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식사는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넘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며, 그때마다 자신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1:15~17).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마 11:28).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믿음의 기도 |

1.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2.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3.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1년 5월 27일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초점 |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본문 | 사도행전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매우 낙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 1:6~7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흥분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진 채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아쉬워하며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행 1:10

행 1:11

천사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행 1:4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첫 명령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 1:14~15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모두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편 119:18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시 119:18 _____

행 2:1~4 _____

그들의 끈기 있는 인내와 기도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상명령을 실천하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지상명령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행 1:8 _____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복음전도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는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행 2:41 _____

그러나 슬프게도, 복음전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친교를 나누며 즐길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순절 이후, 복음전도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마태복음 28:18~20, 마가복음 16:15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세상의 매력적인 일들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재림을 소망하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 22:20

살전 4:16~18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저곳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기에 삶은 너무나 짧고, 바로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딤후 1:3 _____

딤후 4:5 _____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모든 초점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2.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3.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발을 씻다

⁽³⁾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⁴⁾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¹⁶⁾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¹⁷⁾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3-17)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인간으로서 약 33년 6개월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으로 그를 배신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구세주를 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모든 일을 아셨고 더 많은 일 앞에 놓여 있음을 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 중에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본문에 기술된 용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구세주가 종이 되다

구세주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 13:3~5). 예수님은 최상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식사 때에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자신의 겹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모든 찬양을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

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죄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내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 6:9~11).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엡 5:25~27).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구세주가 죄를 씻어 주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요 13:6~11).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주 착각에 빠집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일을 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께 큰 소리를 친 후에 예수님을 단호하게 세 번 부인 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씻겨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 인간 자신의 공로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발은 이리저리 건다보면 더러워지겠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향한 부르심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2~1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어 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더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 다른 이들이 믿음을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할 모든 끔찍한 일들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러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5월

Copyright©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